

## 제6장 색면추상: 숭고미학 I

(1교시)

### ◆ 아름다움과 숭고함

리오타르는 현대 예술의 주요한 미적 범주가 숭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의 ‘아름다움’이란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의 조화에 그 본질이 있다. 우리의 인식적 파악 능력에 적합하게 생긴 대상이나 형태는 아름답다. 숭고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숭고는 우리의 지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범위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 두려움, 공포, 충격이자 인간을 압도하는 수학적 크기나 역학적 힘이다.

이때 숭고는 흔히 쾌와 불쾌가 혼합된 모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무한히 큰 어떤 것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 좌절을 느끼는 불쾌감과, 그것을 마침내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쾌감이 바로 그것이다.

### ◆ 수학적 숭고

인간은 감성이라고 하는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지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를테면 커다란 파도나 절벽과 같은 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숭고이다. 이는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쾌감이 들지만 동시에 이성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이 감각에만 매여 있는 존재에서 이성적 존재로 고양되며, 이 때 쾌감이 발생한다.

즉 수학적 숭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어떤 것으로서 인간 감성으로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능력인 이성이 들어가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인간 능력에 대한 위대함을 역설한다.

### ◆ 역학적 숭고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생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고 충동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타고난 존재로서 자연적 존재인 짐승과 구별된다.

칸트의 이중 왕국 비유에 따르면, 필연성의 왕국에 있는 한 인간도 하나의 생물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편 자유의 왕국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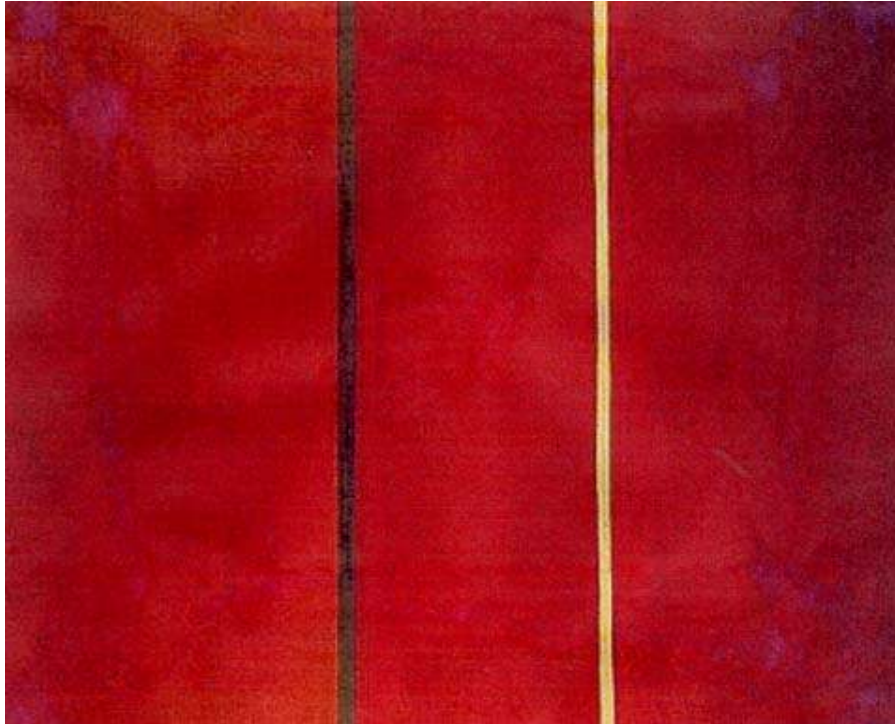
물리적으로는 자연이 인간을 이기게 되어 있지만, 자연이 아무리 강하고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인간 주체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것이다.

(2교시)

### ◆ 숭고의 부정적 묘사

대상을 묘사하기를 포기한 현대예술은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려는 모순적 시도인지도 모른다. 콘트라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숭고를 묘사하려고 했던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뉴먼은 화폭을 지움으로써 숭고를 실천한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의 묘사를 아예 포기함으로써 언어나 그림으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숭고를 위한 이 미니멀리즘의 실천을 리오타르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 부른다. 현대 예술은 묘사를 포기함으로써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증언한다.



<바넷 뉴먼-서약>

#### ◆ 바넷 뉴먼의 등장과 숭고 미학

뉴먼은 유럽 미술의 전통과 단절하기 위해 ‘미’를 거부하고 ‘숭고’를 전면에 내걸며 숭고 미학을 전략적으로 내세운다.

뉴먼은 서구회화의 역사를 ‘미의 관념과 숭고의 열망 사이의 투쟁’으로 요약한다. 서구예술의 고질적인 문제는 절대자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려는 욕망(숭고)을 완전한 창조의 절대성(미)과 혼동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뉴먼에게서 새로운 미학의 단초를 찾은 리오타르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숭고 이론을 토대로 뉴먼의 숭고 미학 이론을 받아들여 숭고론을 완성,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범주에 넓게 적용한다. 이로써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던 숭고의 미학이 부활한다.

숭고의 효과를 위해 뉴먼은 거대한 포맷을 사용했고 관람자로 하여금 거대한 그림을 그 앞에 바짝 붙어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뉴먼의 그림 앞에 선 관찰자는 압도되며 열광에 빠진다. 뉴먼의 “열광”은 전통적인 숭고의 감정, 즉 고양과 격동의 감정을 가리킨다.